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손씻기부터 시작

용산구,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수칙 안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철새이동과 맞물려 동물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대대적인 예방활동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인체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감염 시 치명률이 60%에 달하는 감염병으로 과거 전 세계를 강타했던 무서운 질병이다. 2003년 이후 최근까지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감염 여부가 확인되고 있고 올해에도 이집트, 캄보디아 등에서 환자발생이 보고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은 ▲손 씻기·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할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손으로 눈·코·입 만지기를 피하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등이다. 또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기 ▲닭·오리·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기 등이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3.01.01

체계적 방역시스템 구축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전주시는 가축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월 2일 밝혔다.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구제역과 AI의 전국 확산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시설 출입차량 정보를 구축해 효율적인 방역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축산관련 차량은 교육이수 후 실사용 지역에서 별도로 등록 사용하는 것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차량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8월 23일부터 등록을 시행했고, 현재까지 61대가 등록되었다.

올해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주시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파악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시스 유영수 기자 2013.01.02

1월 AI 발생 가능성 최고조... 차단방역 '비상'

최근 잦은 폭설과 혹한으로 철새 등 야생조류가 먹이를 찾아 축사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분석 결과, 겨울 철새의 국내 유입 시기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해 11월 말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증가한다. 최근 3년간 철새 종류는 변화가 없지만 가창오리는 감소했고, 주요 전파 개체로 추정되는 청둥오리와 쇠오리, 기러기 등은 줄지 않아 발생 위험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AI 발생 추정 시기는 야생조류의 경우,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께이고 이에 따른 축산농가 유입 우려 시기는 1월 중순께 까지도.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총 53건의 고병원성 AI도 1월에 40건(75%)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 지난 2010년 12월 해남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직후 2011년 1월 5일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었다. 전남도는 당시 잦은 폭설 등이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기온이 하강하는 1월이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AI의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의 발생 방지를 위해 매일 농장 소독과 함께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가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전화 1588-4060)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2013.01.08

전통혼례와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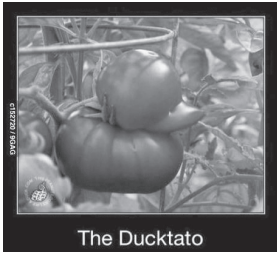
혼례상에 오르는 오리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 하라는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음양을 상징하는 청홍(靑紅) 보자기에 오리를 싼 뒤, 네 귀를 모아 근봉(謹封)이라는 띠지를 두른 후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처음 행하는 의례인 전안례에 등장하는 나무로 깎은 오리는 살아있는 오리나 기러기를 대신한 것이다. 상객이 신랑에 앞서 머리에 색깔을 두른 나무오리는 보자기에 소중하게 싸여 신부 집에 도착하며, 신랑이 나무오리를 받아 오리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게 해서 예상에 올리게 된다. 이 나무오리는 신부 어머니가 치마에 감춰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통례이다.

살아있는 오리나 기러기를 대신하는 나무오리는 머리와 몸체를 같이 깎아서 만들거나 머리 부분만 따로 만들어 몸통 구멍에 끼우기도 한다. 나무오리는 대부분 아무런 장식 없이 머리와 날개부분만 조각하기도 하고 화려한 색칠로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나무오리가 전통혼례에 등장하는 것은 오리나 기러기가 절기를 따라 남북으로 나는 것은 남자는 양(陽)이고, 여자는 음(陰)이니 음양에 순응해 살아가라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질서와 의리를 따르는 오리와 기러기처럼 평생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라는 생태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축산 이희훈 대표이사 2013.01.08

오리 닮은 토마토, '기형이지만 귀여워'

오리를 쏙 빼닮은 기형 토마토가 등장했다. 최근



해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덕테이토’(Ducktato)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줄기에 매달려 있는 빨간 토마토 하나가 찍

혀 있다. 윗부분이 볼록하게 솟은 이 토마토는 마치 오리인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토마토는 오리의 접은 날개와 부리 모양까지 흡사해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오리 닮은 토마토’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정말 오리 닮았다”, “토마토가 이렇게 귀엽긴 처음이다”, “너무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2013.01.08

주요 지하철역의 스크린을 통한 광고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늘의 오리 요리’와 ‘스페셜 오리 레시피’ 등 요리책자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는 “지난해 업계 자율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리자조금을 통해 다양한 소비촉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오리고기 소비가 다소나마 늘어나 오리업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01.10

통계청, 2012년 4분기 가축 사육동향 발표

젖소, 산란계, 육계는 증가...
한·육우, 돼지, 오리는 감소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05만9,000두로 전분기보다 8만4,000두(2.7%)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보다는 10만9,000두(3.7%) 증가했다. 정부의 한우 암소 감축정책 등에 따른 도축 증가와 송아지 생산 마릿수 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우 암소도축마릿수 12년 3~5월 8만6,000두에서 6~8월 10만6,000두 9~11월에는 13만9,000두까지 늘었다. 한우 송아지 생산두수는 3~5월 32만두 6~8월 21만두, 9~11월 12만5,000두로 감소했다. 젖소 사육 마릿수는 42만두로 전분기보다 3,000두(0.7%) 증가, 전년동기보다는 1만6,000두(4.0%) 증가했다. 구제역 여파로 쿼터제가 잠시 유보되면서 농가의 사육의향 증가 및 노폐우 도태

오리, 광고·요리책으로 소비자에게 한걸음

오리협, 지하철 스크린·YTN TV서 광고
요리책자 제작·배포...소비촉진 기대

오리업계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최근 케이블방송을 비롯해 주요 지하철역 스크린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지하철에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 뉴스채널인 YTN TV를 통해 매일 3회씩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방송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세 이상 젓소는 11년 12월 23만4,000두, 12년 6월 25만6,000두, 9월에는 25만9,000두 이번 조사에서는 26만1,000두로 나타났다. 돼지 사육두수는 991만6,000두로 전분기보다 2만1,000두(0.2%)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174만5,000두(21.4%) 증가했다. 산란계 사육수수는 6,134만4,000수로 전분기보다 1만8,000수 소폭 증가했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108만1,000수(1.7%) 감소했다. 육계 사육수수는 7,613만수로 전분기보다 759만수(11.1%)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30만5,000수(0.4%) 감소했다. 육계 사육수수 증가는 계절적 요인(연말연시, 성탄절)에 따른 소비 증가에 대비한 농가의 입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1,116만1,000수로 전분기보다 145만수(11.5%) 감소, 전년동기보다는 157만4,000수(12.4%) 감소했다. 지속적인 산지가격 약세에 따른 농가의 사육의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산신문 김재민 기자 2013.01.11

경 10km 안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15곳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예찰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더불어 시는 AI 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가금류 운송차량과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집중 관리지역 축산농가의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익산시는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축산과(☎063-861-098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2013.01.13

화성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경기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해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먼저 지역 내 철새도래지인 시화호, 화성호 및 남양호 주요 출입구에 출입을 금지하는 홍보용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에 출입 근로자 방역요령 준수 협조요청, 주요 출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 등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여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취약한 종오리, 육용오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 방문하여 시달한 방역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방역실태를 꼼꼼히 점검 체크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등 개별농가별 소독실태 점검 및 일대일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각 농가에 계사별로 발판소독조를 설치하고, 분무용 손 소독제를 계사수별로 공급하여 농가가 계사 출입 시 반드시 손과 발을 소독하도록 조치했으며, 지난 1월초 가금전문 공수의사를 위

전북 익산시 AI 방역 강화... 철새도래지서 저병원성 AI 지속적 검출

전라북도 익산시가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1월 13일 전북 익산시는 만경강 일대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검출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한 주에 두 차례 저병원성 AI 검출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관리지역 반

축하여 관내 전 가금사육 농가에 대하여 전문가 예찰 실시와 방역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소독약품 5종 7톤을 가금사육 농가에 공급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 소독약품 5톤을 비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이 취약한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교정, 개별방역교육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며 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276농가에서 400여 만수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 기자 2013.01.15

강진군에 조류인플루엔자 발붙일 곳이 없다!

박균조 강진군 부군수 현지 출장 방역상황 점검 사업비 4,900만원 투입해 소독약품 구입, 농가에 널리 공급



전남 강진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상·하 공직자가 관내 출장을 내고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1월 16

일 강진군에 따르면 AI 발생우려가 가장 높은 요즘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박균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이 닭·오리 사육농가의 방역실태 점검과 예

방활동 지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균조 강진군 부군수는 1월 14일 관내 부성농장 등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AI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예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지도에 나서 AI 방역대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박균조 부군수는 이날 오리사육 농가를 점검하면서 “AI는 한번 발생하면 자기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까지 살처분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나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각자가 방역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AI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 성전면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덕행 씨는 “부군수님이 직접 농장을 방문·점검하시는 모습을 보고 AI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며 “오리사육업은 우리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말부터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점검과 교육, 군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농가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구제역과 AI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독약품 2.2톤을 구입해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2013.01.16

오리업계 불황에도 산업규모 커져

오리협 집계, 지난해 총 도압 8천983만여수 전년 대비 426만5천여수 증가...성장세 보여

오리업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지만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가 최근 집계한 12월 오리 도압마리수는 671만7천542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도압마리수는 9천만수에서 조금 부족한 8천983만9천458수로 전년보다 426만5천148수가 증가했다. 특히 예년과 같은 성장세를 보였다면 무난히 9천만수를 넘어설 수도 있었지만 연초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 업체 자율적으로 생산량 감축에 나섰다. 때문에 도압물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 도압량이 1천만수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공급과잉의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타 육류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리업계는 가격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오리업계는 자율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감에 따라 그나마 선방했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01.16

오리, 의무자조금 시대 기반 마련

농식품부, 의무화 승인...농가수 등 현황조사 나서

오리자조금이 6번째 의무자조금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오리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자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리자조금도 대의원 선거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시군에 오리스육수

수 및 농가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는 “오리산업의 규모에 비해 농가들은 아직 영세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해 왔다”며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경우 오리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01.16

전북도, 구제역·AI 청정화 유지 총력... 319억 투입

전북도는 올해 가축방역의 최대 목표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 유지’로 정하고, 관련 사업에 319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가축 방역을 위한 분야별 사업은 가축방역 198억원, 가축질병근절대책 22억원, 살처분보상금지원 75억원, 도 자체 방역 24억원 등 4개 분야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상시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상시 지도 점검, 방역교육 강화,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농장 예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4억2,900만 두 분의 연중 공급, 축사내부 소독기 구입,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 브루셀라 및 우결핵 검진, 가축질병 검사, 검사장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축산 관련 단체 및 농가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구제역 및 AI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권철암 기자 2013.01.16

금강호 '가창오리 실종사건' 왜?

기후변화 철새지도까지 바뀌나?

이상기후와 올겨울 일찍 찾아온 한파로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가운데 한 곳인 금강호에서 철새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천수만과 낙동강 하류와 함께 국내 3대 철새도래지로 알려진 금강호. 해 질 무렵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해 겨울철 철새 탐조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런데 올겨울 금강호에서는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초 2천여 마리의 가창오리 선발대가 온 이후 가창오리 본대가 금강호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베리아의 여름 기후가 따뜻해 철새 도래 시기가 늦어진데다 한파가 일찍 찾아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이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금강호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오리류는 올겨울 금강호에서 찾기 어렵게 됐다. 군산시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올겨울 금강호 주변 철새는 갯벌을 중심으로 모여 마리에 불과해 수십만 마리가 겨울을 나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금강호를 찾지 않은 가창오리는 전남 영암호나 순천만 쪽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강호에는 10월 말 겨울 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해 1월 중순까지 머물다가 1월 중순 이후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2월 중순 이후 금강호에 다시 집결해 3월 초 북상을 했다. 가장 개체 수가 많은 겨울 철새는 가창오리로 금강호는 국내 최대 가창오리 도래지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올겨울 들어서서는 이 같은 일반적인 형태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군산시는 금강호의 가창오리 군무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북상을 앞두고 집결할 때쯤이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겨울 철새의 이동시기와 국내 월동지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13.01.16

천안 야생조류 시 검출률 전국 최고

5월까지 비상대책상황실 가동 총력 대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 7마리당 1마리 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검출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풍세천을 비롯해, 아산, 서산, 충북 청원, 강원 원주 등지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집해 AI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천안 풍세천에서는 50개의 분변 가운데 14%인 7개에서 AI가 검출됐다. 같은 검사에서 아산은 7.3%, 청원은 11.5%, 서산은 2%의 검출률을 보였고, 원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충남도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풍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병원성 전이 가능성이 높은 H5와 H7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봄을 고병원성 AI발생의 최대 고비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이 지역에서 서식했던 야생철새가 오는 3~4월경 국내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

운데 야생철새가 먹이를 찾아 하천변에서 양계단지 방향으로 날아들고 있어 농가들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AI 특별방역 방제단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방제단에는 천안시청, 천안축협, 양계축협, 성환농협, 가금류 사육농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오는 5월까지 AI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또 풍세천 주변 양계농장 밀집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및 단지출입로를 차단하고, 철새접근 방지를 위한 춤추는 인형을 설치했으며, 승천천, 병천천, 녹동천 등 4개 하천주변에 소독차량 10대를 동원, 매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유창림 기자 2013.01.17

등급 오리고기 대형마트에서 판매 개시

국내산 오리고기 등급 표시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1월 18일부터 등급이 표시된 오리고기를 이마트, 코스트코 전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전국 11개 업체를 지정 운용 중으로 생산·유통·소비 지표를 제공하여 국내산 오리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질평가사가 직접 오리고기의 품질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등급의 표시와 등급판정일자를 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규 원장은 “오리의 사양기술 증진 및 오리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FTA가속화와 수입육 증가에

따른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갖추도록 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어느 장소에서나 등급 오리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리도체 등급판정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홍귀남 기자 2013.01.19

나주시, 철새도래지 A방역 ‘최선’

우사제·만봉천 등 A발병위험 차단에 적극 나서

전남 나주시는 최근 고병원성 A박멸을 위해 나주축협 공동방제단과 합동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했다고 지난 1월 18일 밝혔다. 이번 소독은 매년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온 철새의 유입이 늘면서 주변 가금류 농장에 고병원성 A의 발병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에 대비한 것이다. 나주시는 A 긴급방역요령의 주의단계에 따라 시청 축산과에 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규모미만농가(닭3천수, 오리2천수)에 대해서는 축협방역단에서 개별농가별 방문방역을, 규모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구역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탐조객의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홍보 현수막, 안내판 및 발판소독조 설치 등을 재정비했다. 이관명 축산과장은 “5월말까지 시와 유관기관, 축산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A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홍정열 기자 2013.01.19

농식품부 정책 사업 이번에도 대형기업에 집중

가금류 도축검사관 사업, 오리 제외...

정부가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서 실시 중인 도축검사를 민간자율 검사에서 정부검사로 전환하면서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사업의 대기업 몰아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번 닭·오리 도축검사의 민간자율검사에서 정부검사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는 소·돼지 도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축검사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위생부분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도축장보다 상대적으로 최신 설비에 높은 위생수준을 자랑하는 대형업체에 먼저 정부검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위생강화 대책들이 대형업체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중소업체로 단계적으로 적용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축장 HACCP 인증,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식당원산지표시제 등의 위생 강화 사업 모두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취급물량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도축검사요원 파견의 경우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까지 고려했을 때 오히려 중소규모의 도계장과 오리도업장에서 시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또 도축검사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절감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

놓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도축검사요원이 파견되는 기업은 총 5곳, 전국 도축수수를 감안할 때 일 10만수 이상 도계할 수 있는 작업장은 익산의 하림, 군산의 동우, 상주의 올품, 음성의 체리부로, 동두천 마니커 정도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닭고기 산업의 50%를 육박하는 대기업에 정부의 도축검사관이 파견되는 꼴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업체는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6명 도축검사관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24명, 15년 36명이 추가로 총원래 전체 도계 도업장에 검사공영화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지만 계속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대기업 사랑은 언제 끝이 날지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3.01.21

안성시 오리농장 화재로 7천500마리 폐사

지난 1월 19일 오후 8시50분께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한 한 오리농장에서 화재가 발생, 오리 7천500마리가 폐사했다. 이 불로 인해 농장 내 하우스 3개동(가로 9m·세로 8m)과 트랙터 1대, 콤바인 2대 등 7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났으며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목격자 B씨(49)가 “‘뽕’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농장 하우스가 불에 타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농장 내 전열기가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목격자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일보 박석원 기자 2013.01.21

‘축산차량 GPS 장착’ 초기부터 혼란

〈앵커〉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된 축산 차량 GPS 장착 제도가 사업 초기부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기기 보급이 더디고 시스템 오류까지 겹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리를 수송하는 한 축산 차량. 올해부터 부착이 의무화된 축산 시설 출입등록 필증과 위성 위치시스템, 즉 GPS를 달지 않았습니다.

[축산 차량 기사 : 소문으로 듣기에는 아직 GPS가 도착이 안 됐다고 해요.]

강진의 한 병아리 부화장에서도 운반 차량 5대가 GPS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착해야 하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 보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화장 관계자 : 왜 GPS기기가 안 나오냐고 문의하면 이동통신사하고 연락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강진읍에 있는 우시장

축산 시설에 들어서면 차량에 장착된 GPS가 작동돼야 하지만 해당 기기는 먹통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육장이나 우시장 등 등록지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작동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공무원 : 차를 갖길 쪽으로 세우면 축산 시설에 왔다고 GPS장치가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가축 전염병으로 홍역을 앓은 정부는 GPS를 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엄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축산 시설 등록 차량 중 GPS를 단 차량은 절반에 그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비 보급이 불충분하고 시스템 오류가 빚어지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GPS 장착 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뉴스 정지용 기자 2013.01.21

위생업무 모두 빼앗긴 농업계 · 농식품부 ‘맨붕’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젠 유명무실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수산분야에 이어 농림축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관하게 되면서 해체 수준에 준하는 조직 축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농식품부의 조직과 기능의 대폭 축소를 담은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과 관

련해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5년 만에 내려놓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시작된 논란은 혹시 농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기능까지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번졌고 1월 22일 조직개편 2차 내용발표에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분야가 떨어져 나가며 조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농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가 떨어져 나가며 다시 반토막 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조직규모가 1/4로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도 1/2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 전체 조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산분야 조직이 빠져나가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약 2,500명 선에 이르는 위생과 안전관련 조직과 인원이 식약처로 빠져나갈 경우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 내에서 농림축산부는 미니부처로 전락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농축산업 관련 업무가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도 크다. 사실상 농산물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광역시도와 시군 단위까지 지원과 지소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가능했던 농정의 효율성도 이제 식약처 그리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농정의 누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명에서 식품이 빠져 식품산업관련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을 우려했던 분위기와 달리 이번 위생 안전 업무의 식약처 이관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의 반응은 새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농산물의 경우 농자

재-농장-가공전단계까지 농식품부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축산물의 경우 농자재-농장-가공-소매 등 전단계를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현재 가공과 유통, 외식 등의 분야에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두 부처의 업무 처리 스타일 그리고 성과 면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부, 농수산부 등 과거부터 생산단계의 안전업무의 경우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통해 위생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위해 농축산물이 원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축산물과 관련된 위생관련 사건 사고가 거의 없는 것도 이 같은 예방적 제도 도입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살모넬라 감염에 따른 식중독,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오염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농축산물의 위생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업무는 시청률에 목말라 하는 방송사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정도로 소비자 안전도 산업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성과위주의 업무처리 스타일로 만두파동, CJ 노루바이러스, 우지파동 등에서 보인 것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우선 터트리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산업과 기업을 주저앉히고 이미 위해한 식품이 퍼질 대로 퍼져 수습에도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치러진 대통령후부 TV 토론회에서 박근

해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꼭 없애야 하는 3대 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당시 농식품분야를 취재하는 전문기자들 사이에서는 박당선인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식이 70~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아니나 다를까 인수위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을 당선인의 철학을 담아냈다고 밝히고 있다. 묵묵히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해 조용히 성과를 내왔지만 주목은 받지 못했던 농식품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처럼 실속은 없는데 전시성 성과물을 뽐뽐 터트려 주목은 받아온 식약청 양부처의 희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엇갈리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3.01.23

〈농업전망〉오리, 산지가격 14.5% 상승 전망

입식줄어 평균 사육수 1,211만 마리 전망

2013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4.3% 감소한 1,211만 마리로 전망되며 공급량 감소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4.5% 상승한 6,566원/3kg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농업전망 2013'을 개최하고 2013년 오리 전망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오리고기 소비증가로 오리 사육마리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1,237만 마리였으며 이중 종오리는 130만 마리였다. 2012년 오리고기 생산

량은 도압마리수 증가로 2012년 대비 5.8% 증가한 17만9천톤이며 수입량은 2012년대비 94.5% 감소한 60톤으로 추정된다. 생산량 증가로 1인당 소비량은 2012년대비 5.1% 증가한 3.3kg으로 추정된다. 2012년 오리 평균 가격은 2012년 대비 23.3% 하락한 5,763원/생체 3kg이었다. 2012년 상반기부터 국내 원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가 공급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종오리 공급은 점차 국내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오리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오리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오리가격은 생산비 이하 수준에서 형성됐다.

재고물량도 크게 증가해 업계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돼 올해 오리 사육규모는 201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3년 연평균 사육마리수는 2012년보다 2.1% 감소한 1,211만마리로 전망되며 산지가격은 공급량 감소에 따라 2012년보다 14.5% 상승한 6,566원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소득 증가 및 보양식 수요 증가로 오리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사육마리수는 1,378만마리, 2022년 1,581만 마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로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7년 3.5kg, 2022년 3.8kg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산지가격은 7,686원/3kg, 2022년 8,367원/3kg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리고기 생산과잉이 지속될 경우 가격 약세 상황이 장시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의 적극적인 물량관리가 필요하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13.01.23